# 日 호류지, 역대 최고 클라우드 펀딩 성공

**'아름다운 호류지' 위해 모금 돌입**
**목표액 8배…2030세대 관심 보여**
**환경 정비와 시설 유지 비용 활용**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 소재 천년고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法隆寺)가 인터넷으로 지원을 호소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벌여 목표액의 8배 가까운 금액을 모금해 화제다. 8월 13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불교계 클라우드 펀딩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호류지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호류지는 지난 6월 15일, 클라우드 펀딩 전문 사이트인 '레디포(ready for)'를 이용해 클라우드 펀딩에 나섰다. 당초 목표액은 2천만 엔(한화 약 2억 원)으로 설정, 후원금액에 따라 호류지에서 제작한 한정 기념품이나 소장문화재의 복제품 등을 답례로 설정했다. 이번 클라우드 펀딩은 불교계에서 흔히 진행하는 성보문화재나 전각 등의 수리가 아닌 사찰의 환경정비나 시설 관리, 경비보안 등 시설유지에 관련한 비용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호류지 측은 "길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화재 관람료나 불전보시가 줄면서 여러모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최초 목표액의 8배 이상의 기금 모금에 성공한 호류지 클라우드 펀딩.
사진출처=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캡쳐

연간 약 65만 명이었던 참배자는 2017년에 약 20만 명으로 격감했다"면서 "경비 재검토와 절약 등 노력했지만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히메지성과 함께 일본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지 30주년"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아름다운 호류지'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다"고 클라우드 펀딩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레디포 측에 따르면 "호류지에서 펀딩을 개시한다는 점이 화제가 되면서 개시일이었던 6월 15일 당일에 이미 최초 목표금액이었던 2천만 엔을 모두 달성했다"면서 "직접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되지 않은 불교계 펀딩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성공에 더해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을 받으면서 해당 클라우드 펀딩은 목표액의 8배에 가까운 1억 5700만엔(한화 약 15억 4천만 원)을 모아 종료됐다.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학여행으로 방문한 추억의 장소", "모두가 아는 그 곳", "세계와 일본의 보물을 아름답게 지키자"와 같이 다양한 메시지를 남기며 호류지 측이 전한 '아름다운 호류지'라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레디포 측은 "본 사이트에서 진행된 클라우드 펀딩 가운데 종교시설 부문에서는 과거 최고액"이라면서 "특히 지원자의 연령대도 2~30대 중반의 젊은 세대가 27.8%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40대까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10~20대도 12.4%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참여 금액이 5천 엔부터라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점, 펀딩이 미디어를 통해 다뤄지며 친근해진 점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호류지 측은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호류지 최고의 성보인 백제관음상 앞에서 축원했으며, 명단을 영구히 봉안할 예정"이며 "모인 금액은 당초의 목표는 물론, 더 나아가 비지정 문화재들의 수리와 복원 등 광범위하게 호류지 소장 성보들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문화청은 올해부터 국보 등의 수리나 방재공사 등의 비용을 클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민간기부로 조달하면 국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간자금을 활용해 문화재 보호에 의욕이 있는 소장처들을 먼저 뒷받침하려는 시도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펀딩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의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펀딩 성공은 가시적인 성과"라면서 "향후 다른 사찰과 기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야한다"고 평했다.

# 불상 밟고 올라선 소녀…인도 영화 '훼불' 논란

**인도 OTT '피해자' 1화 '담맘' 일부 장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소니리브(SonyLiv)를 통해 방영 중인 인도 OTT 앤솔로지 시리즈 '피해자'(Victim)가 훼불 논란에 휩싸였다. 시리즈 중 최근 공개분인 '담맘'(Dhammam)의 일부 장면 때문이다.

인도 인터넷 매체 '더페더럴'(The federal) 등 외신은 8월 14일 "30분짜리 '담맘' 편에서 한 소녀가 부처님 가르침을 언급하는 부분이 논란"이라며 "불교계는 해당 장면이 부처님을 경시하고 조롱한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맘'은 인도 카스트제에 대한 주인공들의 분개, 그중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한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 남성이 소녀를 해하려 하자 소녀의 아버지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소녀의 아버지가 남성을 죽이고, 소녀는 이를 목격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소녀의 아버지를 공격한다.

문제의 장면은 극 초반부 벌판에 버려진 불상을 두고 한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소녀는 불상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하늘을 나는 시늉을 한다. 밭을 일구던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소녀에게 "당장 내려와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버려진 불상이라도 '신'이다. 불상을 밟고 올라서서 더럽혀선 안 된다"라고 다그친다.

이에 소녀는 "부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며 반항한다. 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이내 "당장 내려오라"고 다시 한 번 꾸중한다.

해당 장면에 대해 일부 평론가는 "세상에 신은 없고 오직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만 있다는 것을 소녀의 말을 통해 상기시켰다"며 호평했다.

하지만 불교계와 일부 평론가들은 "그동안 작품마다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영화 '피해자' 감독 파 란지스(왼쪽)와 영화의 한 장면(오른쪽) 사진출처=더페더럴

표현해왔던 파 란지스 감독이 이번엔 실수를 했다"며 혹평했다. 타밀나두불교승가위원회의 보디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은 "소녀의 대사에서 일러주듯 불교는 단순히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 가치를 따르는 종교"라면서도 "그러나 소녀가 더러운 발로 불상을 밟고 올라서는 장면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예고편이 공개된 후 해당 장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감독은 본편해서 해당 부분을 편집했지만 다른 장면들은 고스란히 내보냈다. 이에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은 "불자도 아닌 란지스가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불상을 악용한 것"이라며 "란지스 감독은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반카스트제에 기반한 인도의 정치인이자 불자인 고우타마 산나도 "감독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해당 장면을 연출했다"고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영국 가정집 차고 기도실로 '탈바꿈'

**담마파디파 스님들,**
**차고 개조로 사찰 확장**

영국 에든버러 외곽에 건설 예정이었던 거대 불교 사원 건설 계획이 보류되자 스님들이 한 가정집을 법당으로 개조해 눈길을 끈다.

BBC의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스님들은 기존 사원 차고를 기도실로 개조하고 태국 현지서 모셔온 불상을 봉안하는 등 담마파디파(Dhammapadipa) 사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스님들은 2005년 한 가정집에 처음 담마파디파 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태국 억만장자이자 프리미어 축구클럽 레스터시티의 회장을 역임했던 비차이 스리다나프라바(Vichai Srivaddhanaprabha)는 에든버르 외곽에 있는 부지를 매입, 담마파디파 사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8년 헬리콥터 추락으로 그가 목숨을 잃으면서 담마파디파 사원 이전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카첸 져드폴(Kachen Gerdphol) 주지 스님은 BBC스코틀랜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에든버러 남동쪽에서 매우 좋은 부지를 발견했고, 우리를 직접 데려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다"며 "부지


차고를 개조해 만든 법당과 주지 스님.
사진출처=BBC

와 건물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했다. 그는 생전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컸다"고 회고했다.

스님들은 평범한 가정집에 꾸렸던 현재 사원을 확장하기로 했다. 주지 스님은 "우리는 비차이 회장을 보냈지만, 영국에서 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사원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5만 파운드(한화 약 8000만 원)를 들여 현재 사원으로 활용되는 가정집의 차고를 개조,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차고는 거대한 기도실이 됐고, 차고 문은 대형 방음창으로 교체됐다. 불단 중심에는 태국에서 운송된 500kg 금으로 도금된 불상이 자리했다. 해당 사원은 태국승가위원회(Thai Sangha Council)의 공인을 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 "푸념거리 천도합니다"

**日, 이색 천도재 화제**
**남녀노소 다양한 푸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3년째 여름,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코로나 블루는 물론 일상 속에 생겨난 걱정과 푸념거리를 천도하는 이색 천도재가 봉행돼 화제다. 일본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에리어 닷'은 8월 14일,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봉행된 푸념 천도재를 특별보도했다.

도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곤넨지(嚴念寺)'는 13세기 중반에 세워진 고찰로, 염불도량으로 오랜 명맥을 이어온 사찰이다. 곤넨지는 지난해부터 백중을 맞아 '푸념 천도재'라는 이색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곤넨지의 부주지 스가와라 요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사람간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며 안에서 응어리진 생각들을 시원하게 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푸념 천도재의 의의를 전했다.

스님은 지난해 백중을 앞두고 도반스


다양한 푸념들이 쓰인 종이쪽지가 법당에 걸려 있다. 사진출처=곤넨지

님들과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던 중 푸념 천도재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배운다. 여기서 착안해 코로나 블루가 가진 슬픔이나 분노라는 무거운 감정을 푸념이라는 친근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찰에 방문한 참석자들은 긴 종이쪽에 평소에 강하게 가져온 푸념을 쓰고서 등불이 설치된 벽에 하나씩 붙여 나갔다. 참석자는 초등학생부터 88세의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푸념을 읽으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걱정해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 | 1일차 (8월 24일, 수) | 2일차 (8월 25일, 목) | 3일차 (8월 26일, 금) |
|---|---|---|---|
| 09:00~12:00 | |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 현대인을 위한 포교 |
| 14:00~17:00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 |
| 18:30~20:30 |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 |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